

-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.
-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.
- 강타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.
- 말을 건너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.
- 반복과 정음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낸다.
- 근점에서 원점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한다.
- 은유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.
-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.
-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.
-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.
- 사물의 의미화를 통해 냉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-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.
-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.
-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.
- 명령형의 운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.
-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한다.
-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.
-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.
-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며 시적 여유를 남기고 있다.
-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.
-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.
-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.
-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유를 강화한다.
- 청각적 심상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포착한다.
-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
-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.
-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.
- 상충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다.
-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.
-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.
-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한다.
-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.
- 대상을 고안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.
-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다.
-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.
-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.
-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.
-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.
-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 여유를 준다.
- 어순의 도치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.
-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한다.
-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지각이 나타난다.
-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.
- 화자가 바랄 것 없이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.
- 비유와 상징으로 시상을 구체화 하고 있다.
-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히 드러낸다.
- 유사한 시구를 정음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.
- 부정적 현실에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로 임한다.
-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.
- 과거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.
-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.